

동백꽃 가득한 그 길 걸어보셨나요?

- 전남 강진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 -

동욱 | 작가



'르 카멜리아'

럭셔리 패션의 대명사 샤넬의 상징.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꽃이라고 샤넬은 자랑한다. 동백꽃이다. '명품의 상징' 동백꽃은 원산지가 바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다.

강진 백련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축구장 두 배 크기의 동백 군락이 순례자를 반긴다. 약 1,500그루의 동백은 11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2, 3월에 절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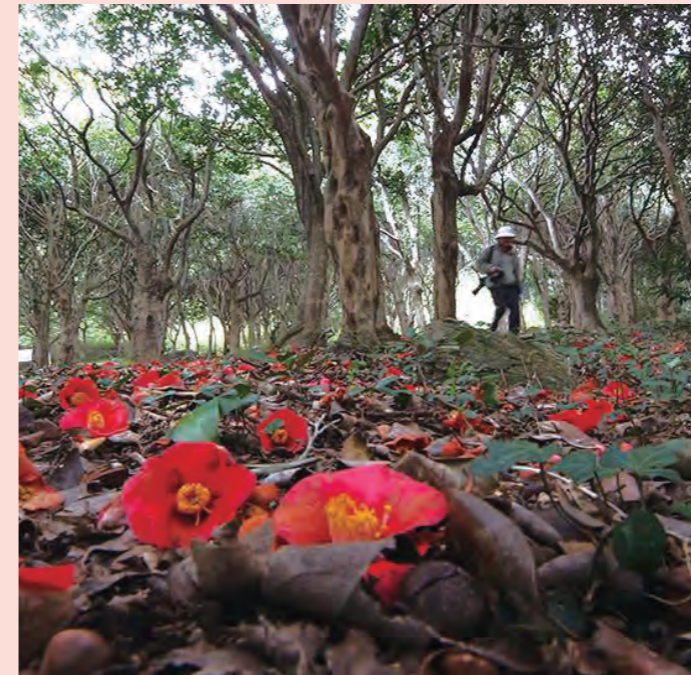
꽃잎이 하나둘 지는 여느 꽃과 달리 꽃송이째 낙화하기에 '나무에서도 피고, 땅에서도 피는' 그런 꽃이다. 한파를 견뎌 피어나고, 송이 째 꽃이 지는 장엄함은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선비의 높은 지조를 닮았다.

동백나무를 사이에 두고 백련사 가는 길을 걷다 보면 조선 후기 유불선을 넘나들던 사상가의 향기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강진으로 유배 온 '조선의 천재' 다산 정약용(1762~1836)과 불교의 해탈 문제를 넘어 유학의 꽃인 주역에도 정통했던 혜장선사(1772~1811)가 주인공이다.



백련사 일주문 지나 펼쳐진 동백나무길



백련사 동백꽃 군락지 낙화(출처: 백련사 홈페이지)

다산과 혜장은 '주역' 해석을 놓고 한바탕 토론을 벌이다가도, 다향(茶香)을 앞에 두고선 서로의 인간적 고뇌를 털어놓았다. 백련사와 다산초당 사이에 난 오솔길이 '종교와 나이를 초월한' 두 사상가를 잇는 소중한 통로였다.

“소통을 생각했다. 다산 서옥에서 만덕사(지금의 백련사)로 올라가는 자드락길 같이 풀려있는 소통. 그 소로를 타고 혜장은 정약용을 만나러 오고, 정약용은 혜장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 길은 유학으로 풀리지 않은 것은 불교로 풀고, 불교로 풀리지 않은 것은 유학으로 푸는 소통의 자드락길이었다.”

<한승원, 『다산2』, 열림원, 2024, p.214>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잇는 오솔길 이정표

혜장과 다산의 애뜻한 우정은 주고받은 편지와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연찮은 해우에 갖은 시름 다 있다가
헤어지면 마음 아파 그저 생각뿐인데,
때마침 들녘 절간 찾아
결결대는 웃음 속에 불법을 묻는다.”**

<혜장과 다산이 주고받은 편지. (출처: 강진 백련사 홈페이지)>

**“삼경에 비가 내려 나뭇잎 때리더니
숲을 뚫고 햇불이 하나 왔다고
혜장과는 참으로 연분이 있는지
절간 문을 밤 깊도록 열어놓았다네”**

<다산과 혜장이 주고받은 편지. (출처: 강진 백련사 홈페이지)>

강진 다산초당 정면에서 본 현판 모습



강진 다산초당 올라가는 길과 다산초당

18년 유배 생활의 한을 혜장이라는 벗과의 지적 소통으로 달랜 다산이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터. 당시 권력자들에게 '잘못했다'는 편지 한 통이면 유배가 풀릴 수 있다는 이들의 전갈에도 다산은 결코 선비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큰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글을 인용해 본다.

**“절조를 지키는 일.
아들 학연에게 답한다. 1816년 5월 3일.**

보내준 편지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다.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음이고,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다.

너는 내게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받고, 또 강준흠과 이기경에게 꼬리치며 동정을 받도록 애걸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테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내가 귀양이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참으로 큰일은 큰일이나.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극히 작다란 일이다...네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내가 끝내 고향땅을 밟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내 운명인 것이다...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지니 다시는 이러쿵저러쿵하지 말거라.”

<정약용 지음,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2009, pp.128~131>



강진 백련사에서 바라본 바다와 달

유배생활의 막막함 속에 다산 선생은 백련사와 앞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르는 자드락길에 나이 10여 년쯤의
동백나무들이 뽀뽀하게 들어서 있다.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날씨는 포근했다. 새빨간 동백꽃들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들이 요염하게 합창하고
있었고, 그 메아리가 가슴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마당에서 대웅전과 보랏빛 만덕산을 등진
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섬들이 연꽃잎처럼 안존했다. 저 바다를
연꽃바다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이 절을
백련사(白蓮寺)라고 불러도 좋겠다.”**

<한승원, 『다산2』, 열림원, 2024, p.134>

郁



자연 속으로 이어지는 길, 백련사를 향해

전라남도 강진 백련사로 향하는 길은 특별하다.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백련사는 오래된 사찰이지만,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백련사로 가는 여정

서울에서, 광주에서, 혹은 남쪽의 어느 도시에서 출발하더라도 이 길의 끝은 백련사로 향한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지나 강진 나들목에 이르면, 곧 백련사로 가는 길목이 시작된다. 제817호선과 제23호선 지방도는 잘 정비된 도로지만, 길가에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산자락이 주는 풍경은 도시에서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른다. 길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숲의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 차창을 열어보면 공기가 조금 더 청량하고, 앞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신성한 느낌을 준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백련사로 가는 오솔길이 반긴다.

여정에 스며든 자연과 다산초당

백련사로 가는 길은 단지 사찰에 닿기 위한 도로가 아니다. 길목의 강진만 갈대밭은 바람을 따라 춤추는 갈대의 움직임이 마치 바다 물결처럼 보인다. 그 풍경은 잠시 차를 멈추고 천천히 바라보라는 듯 다가온다. 조금 더 가면, 다산초당이 눈에 들어온다. 조선 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머물며 연구했던 곳. 그곳의 나무와 돌은 여전히 그의 숨결을 간직한 채 서 있다. 길은 말이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걸음을 멈추고 자연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백련사로 이어지는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마지막 진입로는 숲속으로 난 좁고 경사진 길이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이동하면 된다. 길을 느끼고, 풍경을 마주하는 여유가 백련사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 이 길은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에는 벚꽃이 길을 감싸고, 가을에는 동백꽃이 수려하다.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담아내는 이 길 위에서 지금의 여유를 즐겨보자.

백련사가 선사하는 특별한 평온

도시에서 살면 더 간절한 것이 자연이다. 백련사로 이어지는 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는 자연의 초대장이다. 이 길의 끝에서 만나는 백련사는 단순히 오래된 사찰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온 여정의 심터가 된다. 천천히 길을 느끼고, 그 길이 데려다줄 사찰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본다. 백련사로 향하는 이유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